

## 「2023년도 2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」의견반영 결과

지역 (개최일)	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
서울지역 (6월27일)	<p>① ‘딜라이브 뉴스(보도 프로그램)’ : ‘구로차량기지 이전 불발’ 관련 보도 내용에서 주민인터뷰 중 정치인의 실명이 거론되는데 이런 영상에 대해 자체심의와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?</p> <p>- 정치인은 공인이므로 ‘국민의 알 권리’를 위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. 다만 민간 기업이나 일반 개인은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영상에 블러 처리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.</p> <p>다만 취재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사항의 영상을 노출하는 경우는 있음.</p> <p>② ‘마포구 소각장 건립’ 관련 지자체 비공개 회의 장면이 주민이 제공한 영상이라는데, 초상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. 이에 대한 대책은?</p> <p>- 비공개 회의라는 특수성 때문에 영상은 최소한으로 사용했으며 초상권 침해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경 위주로 편집하였음.</p> <p>그리고 방송 이후 지자체의 항의도 없었음.</p> <p>③ 신규 프로그램 &lt;로드쇼! 즐겨라 대한민국&gt;은 출연진과 영상퀄리티가 훌륭한 편인데, 공동으로 제작하는 케이블TV 4개사의 지역이 겹쳐 지역성이 부족해 보인다. 이에 대한 의견은?</p> <p>- 이 프로그램은 케이블TV 4개사가 양질의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동제작한 것으로 기대효과로 홍보강화, 제작비 절감을 들 수 있음.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</b></p> <p>① 지역채널 커머스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제안</p> <p>- 지속적인 시청자 유입을 위해 다양한 상품 구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매출이 높은 편성시간대의 분석데이터를 누적하고 있음.</p> <p>② OTT 등 기타 플랫폼에 우수 콘텐츠를 공개할 것.</p> <p>- 점진적으로 활성화에 노력하겠음.</p> <p>③ 자체제작 콘텐츠 및 채널 전략을 개선할 것.</p> <p>- 시청자가 공감하는 지역채널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지역채널을 지향하겠음.</p>

지역 (개최일)	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
경기지역 (6월28일)	<p>① ‘딜라이브 뉴스(보도 프로그램)’ : ‘가평군 산사태 예방 노력’ 관련 보도 시 출연 주민 요청으로 영상을 불러 처리했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었나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펜션은 개인의 사유물이므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사항이 아닌 이상 요청자의 요구는 받아들여야 함. 또한 분쟁 발생 시 당사의 입장이 불리한 측면이 있음.</li> </ul> <p>② ‘양주시 응급실 부족’ 관련 보도 시 지자체가 제공한 병원 영상을 사용했는데 병원 측의 동의가 있었는지? 또한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도 내용은 해당 병원의 사례가 아닌 자료영상일 뿐이며 영상 또한 지자체가 제공했기 때문에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음.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 또한 문제가 없음.</li> </ul> <p>③ 신규 프로그램 &lt;로드쇼! 즐겨라 대한민국&gt;은 케이블TV 4개사가 공동으로 제작했는데 그 배경이 궁금하다. 이 같이 앞으로의 협업 계획이 있는지?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IPTV와 기타 플랫폼으로 인한 케이블TV 시장 위축, 그리고 제작환경의 어려움은 동종 업종에게 경쟁보다 협력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끌게 되었고 콘텐츠 교류 등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계속 시도하고 있음.</li> </ul> <p>향후 더욱 우수한 고품질 콘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동기획, 공동제작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</b></p> <p>① 지역 캠페인, 아젠다 설정 등을 통한 지역채널 정체성 확립 제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회사는 공익적인 책무를 가지고 시청자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으며 시청자를 위한 신속한 정보 제공, 무료 이벤트 행사 등 대민서비스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.</li> </ul> <p>② 타사와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 및 개발을 제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에 기반을 가진 동호회, 시민단체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소재를 발굴해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임.</li> </ul> <p>③ 효율적인 지역채널 및 콘텐츠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규 프로그램 론칭, 행사 개최 시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 중이며 향후 지역주민과의 소통에도 활용할 계획임.</li> </ul>